

# 보관용

# 나눔터

2002 · 봄

제41호



- 2 ● 2002년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3 ● 이임사
- 4 ● 여기는 상담실1 | 2001년도 상담현황 분석
- 11 ● 여기는 상담실2 | 열린터 2001년 현황
- 13 ● 성폭력 뿌리채 흔들기1 | 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들
- 17 ● 성폭력 뿌리채 흔들기2 | 영화 '나쁜남자' 를 보면서
- 19 ● 여성 발언대 |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그 후
- 21 ● 뚝다, 여성운동
- 23 ● 이런 일을 했습니다 / 이런 일을 합니다.
- 24 ● 당신을 만나는 기쁨 | 세상이 바뀐다면...
- 26 ● 아낌없이 주는 나무





표지사진 설명 : 2002년을 힘차게 일어나갈 상담소 상근활동가들이 별 따뜻한 오후, 한자리에 모였다.

## 2002년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사업 목표

1.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담론 형성에 힘쓰며, 제도개선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낸다.
3. 불평등한 성문화를 바로잡고 대안적 성문화를 가꾸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4. 조직확대와 재정자립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한다.

### 사업 내용

- 1. 내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 1)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재시스템 개발
  - 2) 성폭력 상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담원 재교육 강화
  - 3) 열린터 입소자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2.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1)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
  - 2) 월례포럼 개최
  - 3) 10주년 운동사 발간
- 3. 대안적 성문화 확산**
  - 1) 성평등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
  - 2) 사이버성폭력 규제방안 연구
- 4. 지부설립과 재정자립을 통한 운동역량 강화**
  - 1) 지부설립
  - 2) 기업후원 발굴 및 후원회원 확충



## 늘 함께하겠습니다



최영애 | 前 상담소 소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막상 상담소를 떠나는 인사말을 쓰려니, 새삼 한없이 착잡한 마음이 들고 여러 감회로 가슴이 벅칩니다. 십 여년 동안 거의 내 삶의 전체로 존재하던 상담소를 떠나, 지금은 다른 자리에서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생경하기만 합니다.

십년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내 가슴 속에는 늘 이 세월이 내 인생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술한 사건들, 사람들... 돌아보면 무언에 홀린 듯 몰입하여 미친 듯 달려 온 세월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김보은·김진관 사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위기센터, 열림터 개설작업으로 눈코뜰새없이 뛰어다니던 시간들... 그리고 지킴이, 나눔이, 상담원, 자문위원, 회원, 후원회원들과 나누었던 감동어린 추억들... 잊을 수 없는 발기인들과의 초기 설립작업... 그리고 십년 세월동안 동거동락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기꺼이 한 마음으로 달려와 준 상근자들... 그들과 함께 한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 상담소를 뒤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걸음을 옮기지만, 늘 마음은 여기에 남겨 놓겠습니다. 상담소의 오늘을 있게 한 많은 이들의 수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정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떠나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결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소장님과 새로운 비전으로 평등세상 지평을 열어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랍니다. 제 마음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본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및 내담자 지원체계 확립과 상담 전문성 강화라는 지속 목표 아래 활동해 왔다. 2001년 한해동안에는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사건지원강화> <상담통계다각화>를 목표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강남구 지역 연계기관간담회, 성폭력·가정폭력 시설종사자를 위한 심화 워크샵, 장애인사건공동대책위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 2001년도 상담현황 분석

하은주 | 본 상담소 상담부장

### 1. 전체 상담현황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1년 12월 31일 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23,727건 (34,930회)이다.

2001년에는 3,593건(4,995회)의 상담 접수하였다. 이중 83.3%인 2,869건(4,161회)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었으며, 724건(834회)은 기타(스토킹, 혼인빙자) 상담이었다. 이는 2000년에 2,307건(3,530회)에 비해 15.16% 증가한 수치이다.

표1. 상담현황

기 간	상담회수	상담건수
1991. 4. 13 - 2001. 12. 31	34,930 회	23,727 건
2001. 1. 1 - 2001. 12. 31	4,995 회	3,593 건

### 2. 2001년 상담현황

#### 1)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분석

표2. 2001년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 계
여성	1,594	457	364	242	117	2,774 (96.6%)
남성	37	36	13	3	2	91 (3.1%)
미상	1	1	0	0	2	4 (0.1%)
총계	1,632 (59.8%)	494 (17.2%)	377 (13.1%)	245 (8.5%)	121 (4.2%)	2,869 (100.0%)



2001년 성폭력피해 상담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774건(96.6%), 남성이 91건(3.1%), 미상이 4건(0.1%)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성인인 경우가 1,632건(59.8%), 청소년 494건(17.2%), 어린이 377건(13.1%), 유아 245건(8.5%)으로 나타났다.

## 2) 피해유형별 상담분석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30건(39.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997건(36.9%), 성희롱 423건(14.7%), 특수강간 113건(3.9%), 강간미수 100건(3.4%),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순이다.

표3. 2001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유형	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몰래 카메라
2,869건 (100%)	997 (36.9%)	100 (3.4%)	113 (3.9%)	1,130 (39.3%)	423 (14.7%)	60 (2.0%)	36 (1.2%)	10 (0.3%)

##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분석

성폭력피해 상담을 가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이 2,814(98.1%), 여성이 41건(1.4%), 미상이 14건(0.5%)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성인 2,233건(77.8%), 청소년 255건(8.9%), 어린이 68건(2.4%), 유아 16건(0.6%), 미상297건(10.4%)로 나타났다.

##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석

성폭력피해 상담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77.5%, 모르는 사람이 18.5%, 미상이 4.0%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내가 634건, 22.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00년의 31.3%에 비해 비율은 약 10%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담건수로 보면 2000년 직장내 상담 건수 547건과 비교해볼 때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친족내가 12.4%, 데이트상대 9.1%, 학교/학원내가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4 참조〉

2000년과 비교할 때, 동네사람의 비율이 12.2%에서 9.1%로 감소하였고 의사, 택시기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만난 경우 발생한 성폭력 피해가 2.0%에서 3.6%로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표 4.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 건〉

아는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355(12.4%)	직장 내	데이트 상대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내	기타	계				
부	친인척											
127 (4.4%)	228 (7.9%)	634 (22.1%)	277 (9.7%)	261 (9.1%)	102 (3.6%)	20 (0.7%)	284 (9.9%)	291 (10.1%)	2,224 (77.5%)	530 (18.5%)	115 (4.0%)	2,869 (100.0%)

### 5) 상담의 후속조치

법정지원(재판참관 및 동행, 진정서 송부)이 2000년 13회에서 2001년에는 41회로 68.3% 증가하였다.

본 상담소에서는 고소이후 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아짐에 따라 내담자에게 적절한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타기관 연계의 경우 2000년 279회에서 2001년 334회로 16.5% 증가하여 관련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연계 상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표 5. 2001년 상담의 후속조치

〈단위: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반기	하반기	전체
상담횟수	316	366	393	376	495	458	451	506	443	373	421	397	2,404	2,591	4,995
상담건수	224	259	250	248	337	326	336	389	341	297	315	290	1,644	1,968	3,612
재상담	92	107	143	128	158	132	115	117	102	76	106	107	760	623	1,383
면접상담	36	43	64	57	64	50	48	32	38	24	46	22	314	210	524
서신상담	1	0	0	1	1	0	0	3	1	0	1	0	3	5	8
온라인상담	36	38	41	29	77	123	109	157	114	94	103	118	344	695	1,039
타기관연계	47	49	28	32	36	31	31	28	21	9	15	7	223	111	334
병원연계	32	34	37	24	36	26	37	26	29	19	14	10	189	135	324
고소건	35	37	19	31	39	44	47	46	40	58	50	57	205	298	503
경찰연계	17	9	11	11	9	13	11	17	9	5	7	1	70	50	120
법률상담	5	3	14	6	10	14	12	8	11	7	7	5	52	50	122
법정지원	3	9	6	3	8	3	3	2	1	0	1	2	32	9	41
자료지원	8	6	17	9	13	17	15	11	13	10	10	8	55	53	108



### 3. 2001년 상담의 특기할 사항

#### 1) 어린이, 유아 성추행 피해 증가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어린이, 유아피해가 2001년 622건(어린이 377건, 유아 245건)으로 2000년 439건에 비해 약 30%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6 참조>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어린이, 유아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468건(75.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강간, 성희롱의 순이다.

이처럼 어린이, 유아 피해 상담이 증가한 이유는 2001년 유아 성추행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영향으로 유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성추행에 대한 부모의 인식향상도 상담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있다.

표 6. 어린이, 유아 피해유형별 비교

<단위: 건>

피해유형	일반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기 타	총계
2000년	91 (20.7%)	4 (0.9%)	3 (0.7%)	315 (71.8%)	6 (1.4%)	20 (4.6%)	439 (100.0%)
2001년	116 (18.6%)	6 (1.0%)	5 (0.8%)	468 (75.2%)	20 (3.2%)	7 (1.1%)	622 (100.0%)

#### 2)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 발생을 11%대 진입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는 임신이 가능한 성인과 청소년 강간피해 944건 중 10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11.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중에서 임신 상태에서 상담을 한 경우는 모두 60건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 31건, 청소년 28건, 연령미상 1건이었다. 그 외에는 낙태 후 상담한 경우가 45건, 출산 및 출산 후 입양에 관한 상담이 3건 있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는 낙태, 출산과 같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의료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낙태의 경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병원에서든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임신피해의 경우, 성폭력 피해 자체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다가 낙태 시기를 놓치고 너무 늦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3) 미성년 가해자 증가

2001년 성폭력피해 상담 중 339건이 미성년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상담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 2,869건의 11.8% 비중으로 2000년 170건에 비해 두배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소년 가해자 255건, 어린이 68건, 유아 16건이다. 특히 유아 피해의 경우 245건 중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101건으로, 이는 전체 유아 피해의 41.2%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 피해의 경우도 377건 중 104건이 가해자가 미성년으로 27.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피해의 경우는 494건 중 112건이 가해자가 미성년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또래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피해/가해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가해자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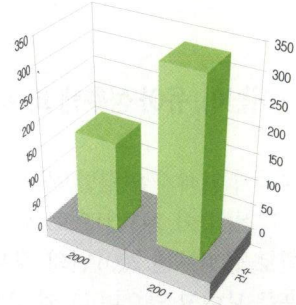


그림 1. 미성년 가해자 건수 비교

### 4) 특수강간 증가

특수강간은 야간에 일어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한 성폭력을 일컫는다. 2001년 성폭력 피해상담 중 특수강간은 113건으로 2001년 58건에 비해 약 두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특수강간 피해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도강간, 윤간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수강간 피해의 증가로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2000년 404건에서 2001년 530건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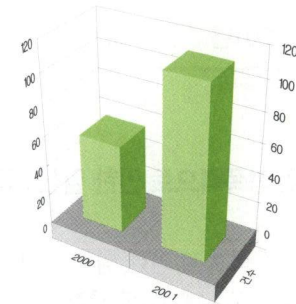


그림 2. 특수강간 건수 비교

### 5) 고소율의 증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고소율은 6%대이다. 이에 비해 본 상담소에 접수된 2001년 성폭력 피해상담의 전체 고소율은 14.8%(425건)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230건(9.96%)에 비해 32.7%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고소 후 상담소에 전화하는 경우가 전체 425건 중 379건으로 8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고소 이후, 법적지원을 받기 위한 상담이 많은 것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즉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



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많아 법적인 도움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법조인의 법적 지원과 자원활동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고소를 고려중인 상담이 249건, 고소 전에 신고만 한 경우가 96건 있었다.

## 6) 온라인 상담 증가

2001년 5월부터 홈페이지 내 게시판 상담을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온라인 상담이 2000년 272회에서 1,039회로 증가하였다. 게시판으로 상담을 한 피해자의 연령은 성인이 40.1%, 청소년, 어린이, 유아가 48.5%로 전화나 면접상담에 비해 미성년 피해자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판 상담의 내용은 성폭력 상담이 431건(76.0%)이고, 136건(24.0%)이 성관련 및 기타 상담으로 나타났다.

표7.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591 (36.2%)	256 (51.8%)	93 (24.7%)	23 (9.4%)	34 (28.1%)	997 (34.7%)
강간미수	87 (5.3%)	5 (1.0%)	6 (1.6%)	0	2 (1.7%)	100 (3.4%)
특수강간	65 (4.0%)	39 (7.90%)	5 (1.3%)	0	4 (3.3%)	113 (3.9%)
성추행	46 (28.4%)	158 (32.0%)	250 (66.3%)	218 (89.0%)	40 (33.1%)	1,130 (39.3%)
성희롱	360 (22.1%)	27 (5.5%)	16 (4.2%)	4 (1.6%)	16 (13.2%)	423 (14.7%)
음란전화	39 (2.4%)	6 (1.2%)	2 (0.5%)	0	13 (10.7%)	60 (2.0%)
사이버성폭력	20 (1.2%)	1 (0.2%)	5 (1.3%)	0	10 (8.3%)	36 (1.2%)
몰래카메라	6 (0.4%)	2 (0.4%)	0	0	2 (1.7%)	10 (0.3%)
<b>계</b>	<b>1,632 (100%)</b>	<b>494 (100%)</b>	<b>377 (100%)</b>	<b>245 (100%)</b>	<b>121 (100%)</b>	<b>2,869 (100%)</b>
스토킹	128	3	0	0	1	132
성관련상담	23	24	9	1	39	96
혼인빙자	20	0	0	0	5	25
기 타	199	96	12	7	157	471
<b>총 계</b>	<b>2,002</b>	<b>617</b>	<b>398</b>	<b>253</b>	<b>323</b>	<b>3,593</b>





여기는 상담실 2

친족이나 동네사람 등 주위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피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열림터 거주를 의뢰해 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94년 9월 개소이래 2001년 말까지 입소한 내담자는 총174명으로 피해자가 피해자가 147명이었으며 27명이 그의 가족이다. 열림터에 입소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유아나 아동기 때부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때 혹은 주위에 알려지면서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로 80%이상이 근친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에게 오는 피해 후유증은 대인관계기피나 사회생활 부적응, 학습능력 저하 등 피해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전문심리상담 및 병원치료, 법정지원등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2001년 열림터에서 생활한 내담자의 현황과 내담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1년도 열림터 현황

이 효 숙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부장

### 1. 피해자 연령 및 피해 유형

〈단위 : 명〉

계	피해 유형			피해자 연령			
	강간	성추행	기타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24	19	5	.	.	4	17	3

2001년도에 열림터를 이용한 27명의 내담자중 피해자는 모두 24명이고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이중 강간피해가 79.2%로 가장 높다. 피해자 연령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 2. 성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계	근친 (3촌이내)	친·인척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사/강사	모르는 사람	직장동료 /상사	기타
24 (100%)	20 (83%)	.	.	3 (12%)	.	1 (4%)	.	.

2001년 열림터에 입소한 피해자의 83%인 20건이 근친(3촌이내)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건은 근친(친부, 의부, 삼촌, 친오빠)과 이웃에게 중복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이다.

### 3. 지원실적

지원내용	수사의뢰	고소,고발	병원치료	전문심리상담	훈련학습	기타(법정지원, 학교지원)
건수/ 회수	5건	5건	167회	564회	2,320회	37회

2001년도 열림터 내담자를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의뢰가 5건, 고소고발이 5건, 치료 및 진단을 위한 병원진료가 167회, 전문가 상담이 564회, 훈련학습(학습/미술치료/원예치료/성교육/영어)이 2,320회 실시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재판과정의 동행과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전학조치, 학교방문, 담임면담 등이 37회 지원되었다.

### 4. 상담 후 조치 및 결과

계	피 해 자		
	귀가	관련기관 의뢰	본 시설입소
27	13	6	8

2001년 열림터 내담자 19명의 퇴소 조치를 살펴보면 상담과 함께 병원치료(산부인과, 정신과, 내과 등)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간 내담자가 13명, 다른 복지시설에 의뢰되어 퇴소한 내담자가 6명이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열림터에는 8명의 내담자가 생활하고 있다.

열림터에 입소한 피해자 대부분은 성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또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족 등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손상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오랜시간이 소요된다.

본 상담소에서는 법적, 의료적,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단기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6개월이상 보호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기관으로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 후유증의 극복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의 총체적인 지원체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의식이 바로 서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따라준다면 훨씬 더 피해후유증 극복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들

나눔터 편집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지난 1월 24일(금) 저녁 7시부터  
 “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들”이라는 제목으로 첫번째 월례포럼을 진행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상숙씨(국민대 강사)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성폭력은 자명한가?: 성적인 것의 혼돈

일상적인 섹슈얼리티와 비일상적인 폭력사이의 경계가 확연하게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앞에 드러난 사건들은 ‘성적인 것’ (the sexual)에 대한 혼돈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죽음, 고문, 강제, 폭행과 같은 전형적인 폭력의 기호들과 맞물린 성폭력 사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친교, 우정, 연애, 사랑과 같은 친밀성의 기호들에 둘러싸인 섹슈얼리티로부터 어떻게 폭력이 발생하며 그것이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성폭력사건들은, 성해방을 여성해방과 동일시하고 프리섹스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을 미성숙한 개인들로 치부함으로써 성폭력을 자행한 성적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성에 관한 보수주의 담론, 즉 여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을 부정한 채 순결과 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부터 공격을 받아온 것에 더하여, 이제는 성적 자유주의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 쟁점과 현안

###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성적 자기결정의 권리를 개인들 각자가 이미 똑같이 소유한 권리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의 해석틀 안에서,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권리충돌의 악순환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 남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추구할 자유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여성이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등하고, 여성이 강간과 성희롱을 주장할 때 남성은 합의한 성관



계와 친밀감의 표시를 주장하거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 공정성을 표방하는 법이 누구의 권리를 우선하며 누구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추상적이고 원자적인 개인을 상정하는 자유주의 국가의 중립성은 성폭력 문제 해결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여성주의 법학자들이 젠더 중립적인 ‘합리적인 개인’의 관점이 사실상 남성의 관점이라고 비판하면서 ‘피해자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 등을 모색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해자의 관점’은 피해자를 위치짓는 젠더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와 고려, 그리고 구체적인 타자의 윤리적 관점에 대한 인정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

## 2) 성폭력의 기준 : 거부 vs 동의

성적 자유주의자들은 강요된 성관계는 성폭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성관계이며, 여성의 ‘거부’ 표시가 없으면 성폭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부’가 성폭력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거부를 표시하기 이전의 상태를 ‘무언의 동의’ 상태로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남성들이 여성의 성적인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의견을 묻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이는 성폭력에 대한 모든 해명과 입증의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전가하는 셈이 된다. 문제가 되는 최초의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해명과 입증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적당할 것이다.

## 3)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 연관

우리 사회의 현행법 체계가 취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의 이원적 규정은 여성주의



에서 상정하는 성폭력 개념과 혼선을 빚기 쉽다. 이에 대해 가능한 대안으로, 먼저 성희롱의 두 가지 의미(직장 및 단체 내의 성폭력과 일상생활의 경미하고 사소한 성폭력)이 별개의 표현으로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정련된 각각의 범주들은 '성적 자율성의 침해'와 '성차별'의 문제의식을 결합한 상위의 성폭력의 개념, 즉 성적인 자율성과 성평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성폭력의 개념 아래 체계적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 4) 성적 자율성과 성평등

성폭력은 한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과 떼어놓을 수 없는 성을 수단화하고 자아의 경험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다. 또 사회문화적으로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에 내재하는 권력의 불평등과 성차별의 사회질서가 성폭력의 발생과 연루되어 있는 한, 성폭력은 현대 민주주의가 약속한 시민권의 보편적 평등이란 관점에서 비켜갈 수 없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성폭력의 문제제기에는 이처럼 자율성과 평등의 요청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 최근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최근 논쟁이 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나의 성적 자율성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일부의 여성이라고 생각되었다면, 이들 사건들 이후 '그 잘난 여자가 왜 성폭력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나'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넓히게 되었다.

####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폭력(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율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방법이다. 단, 자율성 존중을 단순히 여성들이 '거부'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런 행위가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상호적 관계를 고민하는 규범, 즉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규범이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안의 규칙 즉 학칙이나 사칙 등이 만들어짐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방법과 수위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존중하는 '문화'와 '규칙'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

## 성적 자율성과 성폭력 여부의 판단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자율성을 존중했느냐 아니냐를 가해자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그 순간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로하여금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다.

##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테면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에서 한번의 '결정' (선택)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폭력을 용인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보인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것이 여성주의적인 '자기결정권' 인가? 여성주의적인 입장에 맞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좀 더 정교한 해답을 내을 수 있어야 한다.

## 국가/법의 개입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과 중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하는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가 공권력의 힘을 빌거나 법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법정으로 가지 못한 피해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법 안에 윤리적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입법활동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적인 용어를 넣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피해자로 하여금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입증케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행위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하기까지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행위 맥락을 파악하여 판결토록 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향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포럼이었다. 성적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성폭력 규제 방식도 나와야 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보아야 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를 분석하여 성적 자율성의 내용을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다.

다른 다양한 성문화 이슈들과 함께, 이 문제들은 올 한해 계속될 월례포럼의 주제로 선정되어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가부장제의 충실한 ‘아들들’이 벌인 자가 증식 이벤트

- 영화 <나쁜 남자>를 둘러싼 이야기를 보면서

안박은정 | 9기 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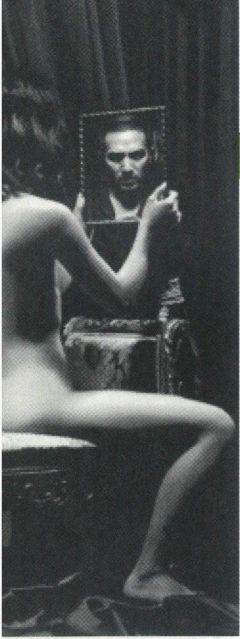
나쁜남자  
Gore and Grit

2002년, ‘나쁜남자’라는 소위 저예산 영화가 7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성공을 거두고 있다. 70개 스크린에 영화를 걸게해준 CJ 엔터테인먼트라는 배급망의 힘, 드라마 ‘피아노’를 통한 조재현 효과, 문화면마다 실리는 영화평과 배우 인터뷰를 볼 때 이 숫자는 놀라운 결과만은 아니다. 오히려 나를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70만명이 김기덕의 영화를 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여성=창녀의 도식을 반복하도록 승인/격려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블록버스터, 조폭영화 속 (여성을 지워버린) 남성들의 유아적인 폭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한 나에게 왜 ‘나쁜남자’라는 영화와 이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불쾌함을 덧입히는 걸까?

의문의 그물망에서 가장 먼저 건져낸 것은 남성 평론가들의 “김기덕” 불러주기였다. 많은 남성 평론가들은 강박적으로 김기덕표 영화 내지는 그만의 고유한 스타일이라 명명하면서 김기덕의 영화에 찬사 또는 애정어린 조언을 보내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들의 끝없는 ‘공모’는 관객이 외면해도, 언론이 혹평해도 굳건히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작가주의 영화”라는 신전에 김기덕의 영화들을 등극시킨다.

평단의 무관심에 ‘허영계 배를 뒤집고 죽어

가고 있던’ <악어>, <야생동물보호구역>은 <파란대문>, <섬>, <수취인불명>등이 해외영화제에 초청되고, 3회 연속으로 베니스의 부름을 받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국제영화제의 ‘인증’을 받은 이들 영화들은 “김기덕 다시읽기” 또는 “새롭게 읽기”라는 제목하에 맛갈스런(?) 텍스트로 태어난다. 이제 많은 평론가들은 그의 영화에 흐르는 일관된 경향을 찾으려 하며 모태회귀/자궁선망으로 나타나는 근원적 고향에 대한 욕망, 상처와 고름의 미학, 중심부와 문명화된 세계에 대해 야생성으로 도전하는 폭력과 이를 통한 주변인들의 소통 등의 수사학이 동원된다. 최근 나쁜남자가 개봉되자, (김기덕의 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수용되는 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몇몇 여성주의 영화 비평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평들은 “우린 논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라며 끝없이 비평을 생산해내며 또다시 ‘김기덕 영화’의 이름표를 빛나게 해주고 있다. 비록 최근의 비평은 단순한 김기덕 추켜세우기가 아닌 ‘옹호와 비판’이라는 공평해보이는 논법을 취하곤 있지만 ‘대립되는 입장이 있다.’는 무책임한 중립론에 머물며 그의 영화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읽어주어야 할” 영화로 인정하는 함정에 빠지게 한다.



남성평론가들은 왜 그토록 김기덕의 영화에 집착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있는 걸까?

김기덕 영화의 인물들은 모두 나뭇대로의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주류적인 삶에서 내침당한 채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의 영화는 주변의 위치가 가질 수 있는 힘인 경계를 뒤흔드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부장제의 성체를 공고히 하며 주변인에게 불쾌함을 전달할뿐이다.

영화는 여성을 모든 남성들이 거쳐갈 수 있는, 다름없이 공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창녀의 역할로 떨어뜨린다. 남성들은 여성의 몸을 공유함으로써 만나고 여성 성기의 교환을 통해 불온한 남성 동성애에 대한 공포를 지워가며 자신들의 형제애를 완성해 나간다. 밑바닥 인생들의 소통 수단이라던 폭력 역시, 위계를 확인시키는 도구일 뿐이며 여성들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일방적으로 가해진다. '나쁜남자'에서도 이 구도는 또다시 반복된다. 영화는 '어짜피 아픈/나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며 영화속 남성들의 끝없는 폭력과 강간, 자해에 공명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남성성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인 여성은 애초부터 목소리와 감정이 제거된

화석일뿐이며, 공명에 성공하는 것은 남성들이다.

또한, 내러티브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되는 <수취인불명>에서 여성은 가슴에 미군의 이름이 새겨진 양공주, 즉 강탈된 민족의 땅으로 그려진다. 자신의 영토를 빼앗긴 남성들은 자신의 수난 경험을 여성에게 전이시킨 채 더욱 강력한 남성성의 회복을 회구한다.

이러한 김기덕의 영화와 이를 옹호하는 평론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폭력에 대한 성찰을 선택하는 대신, '남성되기'의 원초적 방법을 설파하는 전도사를 자임한다.

불쾌함의 진원지는 '나쁜 영화' 한편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충실한 아들들을 길러내는 도양이다. 일상의 위선을 그려낸다는 미명하에 여성에게 사건으로 의미화되는 일들을 모두 지워내며 한방울의 힘도 남김없이 빼버리는 교묘한 영화들(강원도의 힘, 오! 수정), 철저히 남성의 '시선/기억'에 여성을 묶어둔채 생채기 난 근대를 애도하는 영화들(아름다운 시절, 박하사탕)은 작가주의의 대열에서 지속적인 영화찍기를 격려받는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영화를 찍을 것이고, 팔릴 것이고 이름붙여질 것이다. 언제쯤이나 아들들의 "네버엔딩스토리(never ending story)" 대신 가부장제의 경계를 뒤흔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만나기 위해 '집도 없고 법도 없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 P.S.

남성 평론가들이 '논쟁'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군산 매매춘지역에선 또다시 화재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죽어갔다. 이들의 노제가 진행되던 거리 저편 영화관에서는 나쁜 남자가 상영 중이었다고 한다. 가부장제의 아들들이 언어를 독점한채 다양한 방식(거룩하고 세련된 '말씀', 광포한 폭력...)으로 그들의 법을 설교하는 동안 여성들은 무관심 또는 힘없는 동정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죽음조차 제대로 애도되지 못하는, 침묵만을 요구받는 여성의 현실은 '나쁜 남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한국사회라는 '거울'을 통해 또다시 투영되고 재생산된다.



# 모성보호관련법개정 그후

김지선 | 본 상담소 기획조직팀 재정담당

작년 11월, 상담소에 들어온 지 삼 개월이 지나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질 즈음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11월 1일부터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한다는 내용이 각 신문과 TV, 인터넷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을 즈음이었다. 상담소에서 각종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겸하고 있는 터라 다른 사람보다 관심이 컸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려고 했던 시기였다.

개정된 법의 주요 골자는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것이다.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60일의 급여는 기업이, 나머지 3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육아휴직은 월20만원의 지원금으로 남성은 최대 12개월, 여성은 최대 10.5개월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은 이유는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은 산전후 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논란이 뜨거웠다. 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10만원으로 책정하여 여성계, 노동계가 반발한 사건(동아일보 2001.8.6. 22), 여성계가 육아 휴직 급여의 적정한 기준을 29만 5천원으로 제시한 일(오마이뉴스 2001.9.6), 기업주 중심으로 개정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을 반대한 움직임 등 작년 11월 개정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 직전까지 논쟁이 뜨거웠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의 개정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곳에서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1월 21일자 한겨레 사회면에서 여성들이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을 계기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도했다. 여전히 여성을 출산, 육아의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계약직, 비정규직, 사립대 병원 직원은 정부가 제시한 모성보호 관련법의 적용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이라는 것도 이 법의 비현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혼인 내가 생각해 봐도, 아이 분유 값 10만원, 옷값 10만원, 장난감 3만원, 주기적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약품 비용 5만원, 기저귀 값 5만원 가량으로 대략 아이한테 드는 비용만도 33만원은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기에 기본적인 의식주에 드는 비용을 모두 합친다면 맞벌이



로 산다한들 여성·신생아의 건강과 휴식을 강조하는 나조차 엄두를 못낼 것 같다. 실제로 11월부터 12월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43명이라는 노동부의 발표는 나의 어설픈 예상을 적중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현행의 모성보호 관련법이 그 기대와 달리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과, 여성의 건강할 권리와 일할 권리 성취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노동부 조사 결과,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금액이 적어서(42.4%), 업무 공백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34.6%), 인사상 불이익 때문(21.8%)이라고 응답했다. 결국 경제적인 뒷받침도 되지 않고, 고용 관계도 불안정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모성보호관련법은 여성의 복리와 고용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노동자는 남성과 고용관계에서 불평등하며, 결혼과 임신 후에는 사표 쓰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육아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문화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출산과 육아, 가사가 여자만의 몫이 아닌 남녀 모두의 과제이자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인식과 그에 기반한 복지제도가 없는 현 사회에서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다.

작년 12월 말 민주당은 10대 기쁜 뉴스를 선정, 발표했는데 그 중 '모성보호법 통과 등에 따른 여권 신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올해 1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탁아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육아 문제는 개정된 모성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이다.(한겨레 2001.12.26, 2002.1.14 정치면) 물론 모성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하지만 지금이 출산, 육아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정부가 자화자찬할 시기는 아니며, 오히려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모성보호법의 현실화를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그림출처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

2년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에 이어 2002년 1월 29일, 같은 포주가 운영하던 업소에서 불이나 밖에서 잠긴 문을 열지 못하고 또다시 14명의 여성들이 감금당한 채 질식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가 막히고 참담한 가슴을 붙들고 여성단체 대표들은 즉시 군산 개복동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일기장에는 그간의 감금상태의 노예매춘으로 인한 상처와 답답한 심정이 나타나있었다.

대명동 사건으로 인해 창문에 쇠창살은 제거되었지만 밖에서만 창문일 뿐 안에서는 베니어판, 스티로폼, 시멘트로 겹겹이 막힌 벽이 그들을 외부와 차단하고 있었다. 화재현장은 '대가'라는 간판을 단 술집이었는데 버젓한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주변에 문을 닫은 같은 업종의 가게들을 보면 길로 보기에 어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술집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는 길거리 풍경의 하나였던 술집은 도무지 일상일 수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지나쳐서는 안되는 인권유린의 공간이었다.



## 죽어간 어린 녀들을 생각하며

(안일순 님의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시중 일부를 실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곳은 춥고 어두워요.  
네온사인 번쩍이던 군산 개복동 뒷골목에도  
긴 긴 밤이 가고 나면  
새벽빛이 스며들곤 했었는데  
지금 이곳은 춥고 어두워요.  
그래도 밥 먹고 그 짓하고 밥 먹고 그 짓하고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한번 감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같은 통로를 따라  
일련번호 짝 붙어있던 우리들 쪽방에도  
긴 긴 밤이 가고 나면  
저마다 새벽꿈을 꾸는 소리가  
한숨소리처럼 들렸는데  
지금 이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약덕포주, 폭력배, 건달패,  
비리공무원, 부패경찰  
그런 놈들이 없어서 한결 좋아요.

엄마, 내가 어찌다가 가족과 헤어져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찌다가 현대판 노예각서에 인장을 찍고  
인육시장에 팔리게 되었는지  
어찌다가 선불금 빛만 잔뜩 길어진 채  
남자들의 노리개가 되었는지  
또 어찌다가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꺾였는지  
어찌다가 어찌다가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에 갇혀 피울음을 울며  
죽어가게 되었는지  
엄마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 4조 3천억원의 상상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며- 군비의 증강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가져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결과 사회적 불안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테러는 이러한 사회 불안 속에서 싹트게 된다. 그리고 전쟁을 부른다. 이것은 오래된 역사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함께 쓰는 성명서 중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는 4조 3천억원 예산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성명서 함께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www.kwaw.org](http://www.kwaw.org)로 들어가면 이 성명서를 볼 수 있다. 성명서 뒷 부분에 차세대 전투기 구매 예산 4조 3천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전달해서 계속 덧붙여 나가는 방법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모인 성명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미국 정부와 의회, 유엔 등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 평화단체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 한국 여성단체연합 7대 공동대표 선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2년 1월 8, 9일 양일간 제16차 정기총회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고, 제7대 공동대표로 이오경숙 여성민우회 공동대표(상임대표), 정현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강실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의장을 선출했다.

## 전국 성폭력상담소·시설 협의회

2001년 8월 29일,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대표들이 모여 전국 성폭력상담소·시설 협의회체를 구성하였다. 당시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전국을 7개 지역별로 나누어 간사단체를 선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여성부 소속 성폭력분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모든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협의회 운영은 여성부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활동 목표는 1. 상담소끼리의 네트워킹과 정보교환 2. 상담소의 질적 향상 도모 3. 정책 제안 으로 설정하였으며, 1년에 2회 전체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그동안 4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2002년도 활동계획과 여성부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2002년 2월 21일에는 임시 총회가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박인혜 인천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장정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으며, 협의회 정관을 심의·제정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여성부 폭력방지과 정제숙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관한 정책설명과 질의응답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오는 9월에는 상담소 간의 정보교환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1박2일의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다. 2002년 2월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94개소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은 8개이다.





## 세상이 바뀐다면...

이영란 | 본 상담소 선임상담원

### 하나.

어렸을 때, 아주 꼬마였을 때, 뭔가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있었을 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여겼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선생님과 보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그것을 조금씩 유예하기 시작하면서 상급학교로 가게 되고, 그럴수록 세상은 나이를 더해갔고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은 점점 기억에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 둘.

오늘도 나는 상담실에 앉아 있다. 여자와 남자가 늘 하던대로,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그런 데이트하다가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뭔지도 모르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이터에서, 얼굴도 모르는, 또는 너무나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고 아버지, 삼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듣는 것이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않다. 그러한 일들이 (10년 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이야기된다는 것이 생소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이만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좀 정리된 듯하고, 또 여전히 사회적 운동의 물결을 타고 이슈화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건의 수에 있어서는 덜하지 않다. 왜일까?

### 셋.

외국 생활 중 몇가지 경험은 아직도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있다. 십수년도 넘었는데 말이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당당하게 본인의 주장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가,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저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통쾌했었다. 물론 그 나라안에서의 잣대로 보았을 때에는 아직도 그들은 시작이라 생각할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지향하고자 하는 운동과 거기에 따르는 갈등들이 꾸준히 있어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렇지만 내가 말한 앞부분과는 너무나 다른 현상이다.

### 넷.

나는 생활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낀다. '나의 한계'가 아닌 타인에 의해 선 그어지는 '한계' 말이다. 우리아이(나와 내 남편과의)의 보호자란에 내이름을 썼다가 법적 부모는 아버지라는 말에 다시 서야 했고,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이름을 써도 되는가라고 망설여야만 했다.

은행에서 어쩌다 머뭇거리고 있으면 얼른 청원경찰 아니면 안내원이 뛰어와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친절 아닌 친절 때문에 가기 전 한번 더 생각해야하는 불편함을 가진다. 주위에 두리번거리는 남자들이 더 많았는데 말이다. 대출이라도 좀 받으라치면 당장 나오는 '남편의 직업은 뭐죠?'라는 물음에 나는 경제적으로 주체이긴 한가라는 내면의 고민에 부딪힌다.

밤에 혼자 조깅하고 싶을 때, 또 혼자서 산도 타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야 안전하다라는 묵시적인 사회의 약속이 주는 행동에의 제한은 무엇인가?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나'만의 한계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이 글을 읽으며 설마 이러한 한계들을 이 땅의 남자들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을 한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위에 열거한 것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의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되겠지만 말이다.

굳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틀에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한 인간으로서 주어지는 권리는 같은데 그런 권리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제약들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억울하다는 거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언제올까? 내가 꼬마였을 때 그랬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오기는 오는 걸까?





## 이런 일을 했습니다

- '2002년 겨울방학 초등학교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가 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상담소 교육실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연수가 대부분인 가운데 특별히 초등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수여서 초등학교 양호교사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일반인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성평등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강사님들의 열띤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월 24일 (금) 저녁 7시, 1월 월례포럼이 "성폭력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2월 28일 (목) 저녁 6시에는 "동성애의 이해"라는 주제로 2월 월례포럼이 열렸습니다.
- 2002년 2월 7일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개최된 **제11차 정기총회**에서는 제6대 소장으로 장정순 님이 선출되었으며, 200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승인, 2002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장철우 변호사님과 이백수 변호사님이 신임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임기가 만료된 배자하 감사님과 차재능 감사님의 연임이 의결되었습니다. 3월말로 예정된 상담소 이전 및 신임 이사 선출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의 변동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정관개정도 결의되었습니다. 더불어 초대부터 소장직을 역임해오신 최영애 전 소장님과 신임 장정순 소장님의 이취임 인사 자리를 마련하여, 석별의 정과 환영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이런 일을 합니다

- 올해부터 매달 월례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과 성문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릴 이 포럼의 내용은, 홈페이지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의 '이달의 기획'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월 30일 (토), 그동안 정들었던 도곡동을 떠나 상담소가 합정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 4월 25일 (목), 새로운 보금자리 합정동 사무실에서 집들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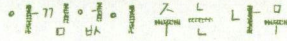
## 회원 동정

- 전 소장이셨던 **최영애**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에서 상근하셨던 **이윤상**님, 이화여자대학교 성희롱상담실 연구원으로 2001년 11월부터 활동해오고 계십니다.
- 14기 상담원 **정낙정**님, '천주교 평화의 샘' 상근직으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 상담소 홈페이지 디자인을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애니메이터 **김혜정**님이 sugarcube라는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셨습니다.

## 새로운 출발, 축하드립니다!

- 17기 상담원 **윤숙경**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 본 상담소 기획홍보부장이었던 **박혜진**님, 10기 지킴이 **한정화**님, 17기 상담원 **김연정**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 **정유순**(열린터 야간간사)님 감리교신학대학교 영성치유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 14기 상담원 **차현수**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 13기 지킴이 **전영미**님이 지난 1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셨습니다.





새로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경민	고급이	권순남	김동희	김선민	김영숙	김용관	김월순	김은경	김은진	김정희
김종남	김주희	김지연	김지연	김진희	김혜경	김혜련	김효선	김홍식	김희진	남정임
남현미	류승훈	마수정	박경화	박미영	박지숙	변계희	서명자	성명주	신경선	신상숙
신숙희	신영지	심혜련	엄구용	윤선화	윤양현	이내화	이대영	이수자	이영옥	이윤희
이윤선	이인자	이정순	이춘미	이현숙	이호진	이희영	임복선	임홍섭	전희진	정미경
정영선	정영희	정원희	정현주	조정숙	조천금	조현미	주남숙	차옥덕	최양렬	최연옥
최중순	한기모									

12월부터 1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식	구나은	권철희	금철영	김강자	김경희	김미경	김미숙	김미옥	김선에	김선택
김소명	김소연	김순형	김언정	김영애	김영정	김옥선	김윤경	김은정	김의창	김인옥
김일륜	김정미	김정순	김종현	김준호	김지신	김지영	김지혜	김진희	김하연	김혜경
김현란	김현식	김혜숙	김혜원	김혜정	김화영	남순열	노미순	노주희	류재경	문효진
민응기	박귀자	박미향	박민주	박선희	박소연	박순주	박윤숙	박준규	박지영	박진성
박진숙	박혜숙	박혜영	박혜진	배은경	배희진	서민자	설연자	손이전	손종성	송성애
신동한	신영진	신은주	안홍례	오길향	오숙자	오숙희	오은화	오현숙	오희선	오희옥
유은주	육향순	윤남희	윤숙경	윤정희	윤지원	이경룡	이경미	이경애	이경은	이근호
이금형	이덕화	이락현	이명선	이명숙	이백수	이상근	이상엽	이상은	이선이	이소진
이순례	이애란	이영분	이은정	이재인	이정아	이푸른메	이효숙	임민희	임순영	임자영
임종은	장윤경	장철우	정경란	정교화	정남운	정대현	정신애	정옥분	정유순	조성숙
조소연	조인옥	조중신	주명희	주서현	지인순	최기홍	최동석	최영애	최옥경	최용득
최정운	최지녀	추은숙	하은주	한보경	한은희	허나운	홍보연	홍성복	황재호	

평생회원 변혜정 이미경

상담소(열린터)에 들뵚을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숙 이운찬 홍기선 15기 상담원 선생님들

# 성폭력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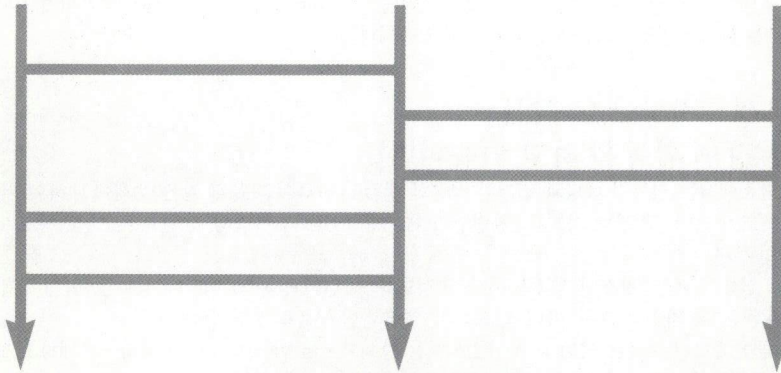


나는 어떤 사람인지 체크하고 사다리를 타봅시다.

성폭력추방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싶은 나.  
시간도 좀 있고,  
몸과 머리를 쓰는 일에  
자신있다.

용돈을 아끼면  
조금씩은 돈을 벌 수 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행복!

시간도 돈도  
넉넉지 않지만,  
우리집엔 쓸만한 것들이  
좀 있다.



**A**  
상담소 후원회원이 된다.

**B**  
자원활동가가 된다.

**C**  
물품을 기증한다.

## A 상담소 후원회원이 되시면

-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를 보내드립니다.
- 상담소 발간자료를 20% 할인해드리고, 각종 강좌 및 교육 수강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 회비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B 자원활동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사무업무를 도와주는 사무나눔이
- 온라인에서 성폭력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나눔이
- 성교육 교사모임
- 상담원(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이수 시)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C 물품을 기증해 주시면

상담소와 열림터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김치까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없이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단위, 혹은 연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계좌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거나, 연 4회 우편발송되는 지로납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국민은행 009-01-1176-632
- 외환은행 224-22-02532-8
- 기업은행 216-013179-01-018
- 조흥은행 308-01-133092
- 농협 037-01-194301
- 한빛은행 441-04-107528
- 신한은행 219-05-001717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본 상담소실별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별의 색깔은 '여성' 과 '자매' 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3만 5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성교육 지도자 교육/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의뢰 문의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김언정 부장/ ☎ (02) 338-2890~2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상담·열린터 입소문의 : ☎ (02) 338-5801~2

■ 인터넷 상담 : ksvrc@chollian.net

■이사 김삼화 문해란 박찬은 이명숙 이백수 이은미 장정순 장철우 최영애 최보원 최은순 홍순기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자문위원 · 교육 교사/김성에 차옥덕 교육학/김인수 정유성 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사회학 · 교육심리학/강영숙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 고순래 김삼화 김의창 남성렬 박성호 박찬은 손명숙 이명숙 이백수 이유정 이향아 임종인 장경호 장철우 정성광 정연순 최은순 최현희 하일호 경찰/김강자 이극형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상담심리학/권해수 김순진 김정규 이윤로 이장호 이해성 장연집 정남은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 이원숙 한인영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정영숙 법의학/강신몽 권일훈 문국진 서중석 이경룡 이윤성 최영식 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 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 김홍배 문영규 민웅기 박근자 박종민 손인숙 윤경 윤연정 이길여 이신애 이옥주 임용택 정경원 조삼현 조정현 최보원 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신의진 최보문 임태식 외과/오세민 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응급의학/원형섭 임상병리학/강정옥 문해란 정신과/김광일 김병후 김정일 남정현 박수용 박진생 양창순 유재혁 이호석 윤영민 이수경 전지홍 조맹제 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 김영선 김효선 서은미 이은미 호흡기내과/안철민 · 재정 프리랜서/여남영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윤영민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 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 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건 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21세기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 강명구 김양희 김훈순 원용진 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사회복지학/권진숙 이원숙 사회학/김준호 심영희 여성학/김은실 변혜정 이재경 장필화 조주현 이미경 임순영 철학/이상화 정대현 아동복지학/장화정 청소년연구원/김선숙 김엘림 신유자 사회복지학/김혜원 사회학/박진숙 ■소장 장정순